

보도시점 2023. 8. 31.(목) 15:30
(2023. 9. 1.(금) 조간)

배포 2023. 8. 31.(목) 09:00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논의

-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인공지능 윤리규범 제언
- 인공지능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혜택을 모두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을,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와 함께 8월 31일(목)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어갔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올해 4월 산업계, 학계,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제2기 포럼을 출범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의 공론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다양한 우려와 쟁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윤리원칙, 정책방향, 주체별 권리와 책무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이 제기되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은 디지털 심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서 잘 활용하면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경제 진보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쟁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면서,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그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공론장(<http://beingdigital.kr>)과 연계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논의 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전략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책임자	팀 장	이강용 (044-202-6169)
		담당자	사무관	정성욱 (044-202-6156)
		담당자	사무관	김희선 (044-202-6276)